

교통사고 고려인 돕기 지역사회 뭉쳤다

광산구 고려인마을·대한적십자 등 치료비 마련 못하는 김발레르씨에 희망풍차 긴급지원금 1185만원 전달

교통사고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고려인 김발레르씨를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석)가 최근 고려인 김발레르씨에게 희망풍차 긴급지원금 1184만 7300원을 전달했다. 지원금 중 500만원은 지난해 9월 방송연계모금을 통해 지원했으며, 이번에는 온라인(네이버 해피빈) 모금액 684만 7300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김발레르씨는 지난해 6월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공사 현장에서



일 자리를 구하려고 전북 익산으로 가던 길이었다. 치료비가 4000만원을 넘어 보험으로도 충당하기 어려웠고, 퇴원 이후 재활치료·추가수술도 큰 부담이었

다. 소식을 듣고 광산구 고려인마을이 도움을 자처했으며, 적십자 광주전남지사도 희망풍차 네트워크 공동체사업으로 성금을 모았다. 희망풍차 네트워크는 각종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의 참여·연계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희망 만들기 사업이다. 김발레르씨는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다. 도움을 주신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심병수 신경외과 원장, 전남 106호 아녀소사이어터



심병수(왼쪽에서 네번째) 신경외과의원 원장이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전남 아녀소사이어터 회원으로 가입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목포대 LINC+사업단, 창업지원기관협의회 정례회의



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은 17일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2020년도 제3회 지역창업지원기관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목포대 제공>

벤엘교회, 코로나 여파 자영업자 돕기 1000만원



광주시 남구에 있는 벤엘교회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남구청에 현금 10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광주 남구 제공>

전남도소방본부 김정훈 소방관 재난 안전관리 박사 학위



김정훈 전남도소방본부 소방관이 재난 안전관리 관련 연구로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제목은 '헌법상 국민의 안전권 구현에 관한 연구-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를 중심으로'이다.

김 소방관은 논문에서 "세월호 침몰, MERS, 코로나 19 사태에서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 본연의 임무임에도 소홀히 취급돼 왔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헌법상 안전권에 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을 도출하기에 수월치 않은 현행 헌법 규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헌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해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북구,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입 장학금 100만원씩 전달



광주 북구청(청장 문인·사진)은 대학교 입학에 앞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며,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 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북구는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중단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소속 학교 밖 청소년 178명 중 173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인 북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학습과 진로·취업 지도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미켈슨, 방송 해설가로 변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뒷걸음치는 경기력으로 서서히 몰려갈 때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 필 미켈슨(미국)이 시니어투어 활동보다는 방송 해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켈슨과 사업을 오랫동안 동업한 스티브 로이는 17일(한국 시간) 프린트 오피스 스포츠라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 또는 2년 안에 미켈슨이 방송 해설가로 등장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켈슨과 진로 문제를 늘 상의한다"면서 미켈슨이 몇몇 방송사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미켈슨은 일찌감치 방송 분야에서 '끼'를 인정받았다. 호감형 외모와 재치 넘치는 말솜씨이다 PGA투어 안팎을 속속들이 꿰고 있고 인기가 높아 방송사에서 눈독을 들일만한 조건은 모두 갖췄다.

지난해 PGA 챔피언십 기간에 미국 최고의 골프 중계방송 캐스터로 뽑은 짐 낸츠, 해설가 닉 팔도와 함께 중계방송 스튜디오에 잠깐 출연했을 때도 호평을 받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사진 정리 서비스 폰클렌징 스페셜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숨터	00 안녕? 나야(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9시 뉴스 특집 50 9시 뉴스 특집 모노크롬, 도시를 깨우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남 국제 수목비엔날레 특집 모노크롬, 도시를 깨우다(재)
[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55 나의 살던 고향은(재)		20 푸리가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00 뉴스브리핑
[3]	00 짝 잡아 3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본 좋은 날(재)	00 박미선과 돈우리 돈해피(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2 15 캐치! 티니핑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정글의 법칙(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05 생방송 영공복권 720+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특선다큐 완벽한 행정 지구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안녕? 나야!	20 OPAL이 빛나는 밤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수미산장	40 다큐플러스 한 평의 삶 -은밀한 이야기	35 펜트하우스2 히든룸 -은밀한 이야기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лай트	40 불빨간 신선놀이 스페셜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15 통합뉴스룸 ET(재) 45 사랑의 가족(재)		20 나이트라인 50 닥터 365 55 네모세모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형사 가제트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07:00 띠띠띠 띠띠띠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7:15 로보가 폴리	12:25 지식채널e	19:00 아바타-아왕의 전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3:00 명의	19:45 다크 잇!
08:00 당동당 유치원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30 뽀로로 동화나라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에메이징 북아메리카 -나이야가라, 맛있는 가을속으로>
08:45 휘트니스 박사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21:30 한국기행 <겨울이 가기 전에 4부 아주 오래된 풍경>
09:00 꼬미와 베베	15:45 레인보우 루비	21:50 파란만장
09:15 또깨비 가족	16:00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5 가족이 맞습니다
09:30 물랑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30 당동당 유치원(재)	
10:30 한국기행(재)	16:50 해오와 해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8일(음 1월 7일 丁酉)

<p>36년생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변 하리라. 48년생 지속된다면 반드시 성사한다. 60년생 싫증이 난다고 해서 미룬다거나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72년생 진실은 진실로만 통한다는 사실을 알라. 84년생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기쁨이 올 것이니라. 96년생 체면 차리지 말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22, 76</p>	<p>42년생 조짐이 보인다면 초기에 수습해야 뒤따라 없다. 54년생 신속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느니라. 66년생 통일된 시각과 진중함이 형세를 굳히리라. 78년생 의외의 길사가 보이니 기대해 볼만하다. 90년생 망각하고 있지 않나 살펴볼 일이다. 02년생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마련이다. 행운의 숫자 : 25, 74</p>
<p>37년생 지나친 집착은 심신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49년생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니 충분히 감안해야겠다. 61년생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라. 73년생 별 재미가 없을 것이다. 85년생 특별한 의미의 징후들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97년생 운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13, 62</p>	<p>43년생 지금의 판도가 무방해했다. 55년생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과감하게 끊자. 67년생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79년생 낙담하게 배똥만 인심을 잃지 않는 법이다. 91년생 부족하다면 좀 보태면 되는 것이다. 03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끌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7, 98</p>
<p>38년생 획일적인 시각은 오류를 부르게 이 혼분하다. 50년생 길경이 낄 수 기분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겠다. 62년생 함께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74년생 객관성을 확보하고 중용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 낫다. 86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라. 98년생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노파심은 거두어 두되다. 행운의 숫자 : 47, 85</p>	<p>32년생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4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라. 56년생 강도 높게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68년생 늘 바깥은 것이니 완벽한 마무리를 하려들 필요없다. 80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92년생 입에 발린 덕답답다 속 깊은 충고에 귀 기울여라. 행운의 숫자 : 29, 97</p>
<p>39년생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51년생 재물이 늘어 날 수도 있는 운세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 63년생 굶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75년생 강력한 추진력이 요청되는 때이니라. 87년생 기존의 것을 교체하게 되는 판국이다. 99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5, 57</p>	<p>33년생 굳이 갈증 필요가 없으니 투명하게 하라. 45년생 최소하고 하는 것이 경제에 이호 하리라. 57년생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69년생 주중에 따라서 선수를 따져야만 하느니라. 81년생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93년생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정성이 필요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6, 59</p>
<p>40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52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64년생 순발력 있게 적응해야만 할 것이다. 76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할 것이니 바짝 잡아 당겨줘야만 한다. 88년생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성숙해지리라. 00년생 맹점을 놓치지 않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67</p>	<p>34년생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축전을 벌이겠다. 46년생 기대 왔던 바가 허망해지는 처지이니라. 58년생 확실한 조짐이 보이지 않지 않도록 하자. 70년생 믿고 의지하여 왔던 바를 갑자기 잃을 수도 있는 운로이다. 82년생 허울 좋은 명분 보다는 알찬 실적을 차리는 것이 이익이다. 94년생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 행운의 숫자 : 35, 89</p>
<p>41년생 지금, 보완하지 않으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53년생 결코 한시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해 있느니라. 65년생 확대하거나 숨겨려 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대하라. 77년생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마당이다. 89년생 발전으로 이끄는 새로운 기운이 보인다. 01년생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38, 87</p>	<p>35년생 앞날이 환히 열리는 계기가 조성된다. 47년생 절대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59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71년생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83년생 이동수나 매매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95년생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6, 95</p>